

위메프오광주공공배달앱, 7월 정식 출시

단골마케팅 강화... 전통시장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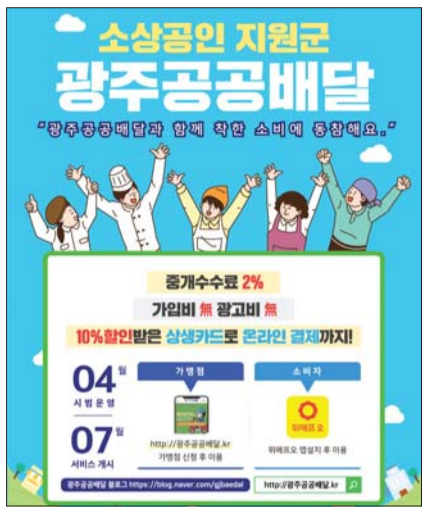
광주시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성과 4월부터 6억7419만5000원 매출 광주상생카드 결제비율 60% 육박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앞둔 위메프오 광주공공배달앱이 가맹점과 매출을 늘려 가면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 절감을 내세워 지난 4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18일 현재 2만9771건에 6억7419만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광주상생카드 결제비율은 60%에 육박했으며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등 절감분이 소상공인 실익 증대로 직결되고, 지역화폐 기반 할인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입점업체도 4314개에 달했다.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 제과점, 착한가격연구소, 전통시장 맛집



광주형 공공배달앱 홍보이미지 /광주시

등 업종도 다양하다.

시는 다양한 홍보전과 함께 가맹점 주간담회, 소비자 민원상담을 통해 가맹점 복수 앱 사용에 따른 불편과 앱 노출 방식을 개선하고 선택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검색 카테고리 등 앱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특히 가맹점주 입점 절차 때 현장 영업대행사를 활용하고 등록처리기한을 단축하는가 하면 신규 매장 할인 아이콘을 개설하고 배달예상 시간 알림 기

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단골 마케팅을 강화하고, 광주상생카드 결제할 경우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했고, 7월에는 배달 주문시 위메프오에서 라이더 호출을 대행하는 UFO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식 출시에 맞춰 7월중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신선한 농·수산물, 식재료 등을 품목별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아 자택에서 배달받아 볼 수 있다. 위메프오 앱을 다운로드해 '장보기' 아이콘을 사용해 상품을 선택 주문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 맛집 코너가 개설돼 추억이 깃든 시장 맛집에서 온라인 주문·배달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는 남광주 해프는시장과 무등시장이 참여하며 앞으로 참여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광주 재개발 참가 희생자 기억해주시요”가 다음달 11일까지 운영된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붕괴 참사로 숨진 희생자 9명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다음달 11일까지 운영된다. /뉴시스

경북 소상공인 60% 이상 5년내 폐업

경북도 지역상권 인허가 분석

폐업률 가장 높은 업종 건식 식품

경북의 소상공인 가운데 60% 이상이 인허가 후 5년내 폐업하고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음식점과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가 최근 지역상권 인허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상가수는 15만 3000여개로 전국 241만6000개의 6.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인허가는 10만9319건, 폐업은 6만5524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가의 상위업종은 음식(5만

9527개, 39%), 소매(4만9341개, 32.3%), 생활서비스(2만4408개,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상위 3개 업종 비율에 비해 평균 2%포인트 높은 것이다.

관광, 부동산, 교육 업종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허가대비 폐업률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15.2%),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설치사업장(41.3%), 미용업(49%)순이었다.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21.1%), 담배소매업(88.8%), 즉석판매제조가공업(88.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전남기업, 中 장시성서 130만弗 투자 유치

전남도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 개최 도내 10개사 장시성 바이어 연결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국 장시성과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를 벌여 130만 달러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전남도·장시성 간 온라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로 양 지역 간 경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시성은 전남도와 2004년 우호 교류를 시작해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다.

상담회에서 전남도는 지역 현황 설명에 이어 장시성 바이어 40여 명을 대



전남도청 전경

상으로 장류, 건강기능식품, 곡류 가공식품, 화장품 등 10개 사 20여 개 제품을 소개했다. 이어 도내 수출기업 10개사와 장시성 바이어 18개사가 참가한 1대1 매칭 제품 상담회를 온라인 화상 상담 형태로 진행했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

명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매칭했다. 또 중국 현지 상담장에 도내 수출기업의 제품 샘플을 전시해 바이어가 실제 제품을 체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추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온라인 상담회가 두 지역 간 원활한 교류를 매개로 무역 분야 새로운 상생 모델로 발전해 수출 활성화와 함께 우호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7월 초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 청두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예도선 자동배정' 시스템 개발 추진

최적 운항 경로·대기 최단 시간 도출

전남도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도선 자동배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이웍스, 시티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2021 데이터 플래그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국비 4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안전한 항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기록, 위치 정보, 스케줄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예·도선을 위한 최적의 운항 경로와 대기 최단 시간을 도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점 해결에 활용한다.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선박-선사-항만 간 입출항에 필요한 예선 서비스 통합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 최단 거리 예선 배차 적용, 도선사와 실시간 자동 배정이 가능하다. 선사의 운영경비 절감과 바다 환경 오염도 개선한다.

이번 선정 과정은 지난해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0년 전남도 공공데이터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예술 선물 배달 웃어요, 전주'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 이메일 신청 접수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7월 2일까지 '예술 선물 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에 참여할 시민예술가 및 전문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독거노인을 비롯해 이동이 불편한 전주 시민, 즉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의 계층이 대상이며, 문화예술인이 직접 수혜 대상을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선물)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총 3개(시각·공연·예술치유) 분야이며, 시각 분야는 어르신 캐리커처와 초상화 그리기, 공연 분야

는 악기 연주, 노래,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신청할 수 있다. 예술치유는 미술, 음악 등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 블루로 위축·고립된 시민을 문화예술로 위로하며,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활동 횟수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전북)=양수영 기자

영양군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영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선정심사 시 우대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전문컨설팅, 점포 경영환경 개선, POS단말기 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농기원, 자체개발 포도 신품종 보급

이달 하순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

경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지난 2019년 자체개발한 포도 신품종인 '골드스위트(사진)'와 '루비스위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농기원은 20일 이 달 하순에 이들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처분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 허락되면 품종보호권자(경북도)로부터 육묘업체나 농업인 단체가 품종의 종묘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농기원에 따르면 청색 포도 품종인



'골드스위트'는 수확기가 9월 중순으로 '샤인머스켓' 품종보다 2주 정도 빠르며 사과처럼 식감이 아삭하고 당도가 24도까지 올라간다.

적색 포도인

'루비스위트'는 수확기가 8월 하순으로 착색이 잘되고 당도가 높으며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편해 농가에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김귀열 기자